

사회적 통합과 자살: 연휴가 자살자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승용**

이 논문은 사회적 통합이 평소보다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는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의 특정 연휴기간에 자살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연휴 이전 3일과 연휴당일에서의 자살자수 감소, 연휴 이후 3일의 자살자수 증가를 가정하고, 2000-200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핵심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휴기간의 자살자수 감소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혼인상태에 따른 자살양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고령자 집단에서 자살자수의 감소양상이 나타난다. 단, 성탄절에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자수 감소가, 높은 연령대의 자살자수 증가가 나타난다. 넷째, 가설에서 설정한 자살양상의 감소-감소-증가 형태는 규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연휴에 강조되는 가족적 가치가 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는 가족적 가치와 의미의 회복이 자살이라는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핵심단어: 자살, 연휴, 사회적 통합, 혼인상태, 연령, 가족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의 자살사건 등이 언론매체의 일면에 오르내리면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자살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자살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살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2000년 후반에 밝혀지면서 자살은 한동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자살자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살률은 1995년 11.8에서 2005년 26.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한해가 지난 2006년에는 자살률이 23.0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7).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령층의 자살률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대의 여자 자살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자살의 사전적 정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 표면적인 해석으로는 자살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가 어떠한 환경에서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가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동시에 그를 들

* 2008년 2월 예정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인용불가.

**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재학 중.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조교.

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점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자살의 핵심원인에 대한 견해와 시각의 차이로 인해 두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연구는 뒤르켐의 연구에 기반을 둔 사회학적 논의와 개인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적 논의로 크게 구별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자살률이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연령대에서 자살자수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심리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보다 심층적인 통해 자살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에는 특히 고령자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살률의 증가와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로 언제 감소하며, 왜 감소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이 감소하는 시기와 환경을 찾아내고, 감소하는 집단과 그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도한다면, 역으로 높아져 가는 자살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처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자살의 증가가 아닌 감소의 시기와 감소하는 집단,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정도(social integration)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자살에 대한 고전적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뒤르켐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자살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통합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특정 시기에는 분명 사회적 통합이 일시적으로라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때문에 월드컵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의 가치로 모을 수 있는 의식이나 행사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 통합을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뒤르카임의 주장처럼 사회적 통합과 자살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 통합 정도가 변화하는 특정 시기에는 자살양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신정, 구정, 추석, 그리고 전통 명절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연휴로 자리 잡은 성탄절 등의 기간에는 사회적 통합정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족적 통합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도 강화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차례나 전통 놀이, 음식 만들기 등 전통 의식이 행해지는 명절의 경우 이러한 의식을 통해 하나의 공유된 가치를 강화시키게 되며, 이것은 곧 사회적 통합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살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특정한 행위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의 연휴(holiday)로 설정하고 사회적 통합의 변화와 자살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일별 자살자수를 파악함으로써, 연휴 이전과 연휴당일, 연휴 이후의 자살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가를 2000년-200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

부적으로는 연휴의 의미가 혼인상태별로, 연령별로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자살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가설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결과

1.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통합의 개념과 기존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학적 접근은 사회적 통합과 자살 간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뒤르껴의 ‘자살론(Le Suicide)’이다. 그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비사회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비사회적 요인으로 정신질환, 인종, 유전, 기후, 계절적인 온도, 모방 등을 지적하고 이를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실상 모든 사회적 집단에는 유기적 및 심리적인 개인의 체질이나 물질적인 환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자살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비사회적인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핵심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자살의 경향은 사회적 원인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집단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원인의 핵심은 사회적 통합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뒤르껴는 사회적 통합의 차원과 정도에 따라 자살의 유형을 크게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등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통합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면 이기적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반대로 사회통합이 너무 강하여 집단적 규범이 개인에게 강하게 작용하면 이타적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통합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는 힘을 잃고 무규범 상태가 될 때 발생한다.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다루면서 뒤르껴는 일차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종교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특정 종교가 가진 종교적 개념의 특이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밀도 있는 집단적인 삶을 교리와 의식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가족사회, 정치사회 등도 종교사회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각각의 사회에서의 자살양상을 분석하였다.

자살방지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가족사회를 분석한 결과, 뒤르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혼(早婚)은 특히 남자의 경우에 자살률을 촉진하는 경향을 가진다. 둘째, 20세 이후의 연령층에 있어서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하여 덜 자살한다. 셋째, 기혼자의 자살방지계수가 더 높은 성별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자살방지계수에 있어 유리한 성별의 유리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넷째, 홀로 된 사람들은 기혼자들보다 자살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혼자들보다는 적게 자살한다.

*** 자살방지계수는 한 그룹에 있어서의 자살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동일 연령에서 몇 배나 더 낮은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5세인 기혼남자의 자살계수가 같은 연령의 미혼자에 비하여 3이라고 하는 것은, 25세 기혼자의 자살경향을 1이라고 했을 때, 같은 연령 미혼자의 자살경향은 3이라는 뜻이다(뒤르껴, 1897). 곧, 기혼상태는 미혼 상태에 비해 자살방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뒤르켐은 이러한 결과를 기혼자가 자살에 대한 면역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혼자의 면역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은 가족, 즉 양친과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전체 그룹으로서의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남편과 아내는 가족의 구성원 이지만,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즉 가족결사의 기능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자살자의 수와 평균 가족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살자의 수가 줄어들수록 가족의 밀도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족의 기능이 그 밀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집합감정이 강하다는 것은 각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모든 사람들 간에 교차되어 반사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집합감정의 밀도는 공동으로 서로 반사작용하는 의식의 수량에 의존한다.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일수록 집단의 통합정도는 강하다. 때문에 가족은 자살에 대하여 강력한 예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족이 더욱 강력히 통합되어 있을수록 자살에 대한 예방력도 더욱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가족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혼인상태, 성별, 연령, 자녀유무 등의 변수들이 고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보다 자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Gove, 1972; Danigelis and Pope, 1979). 특히 이혼은 가족사회의 통합을 저해하여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tack, 1980, 1985; Breault, 1986; Krull and Trovato, 1994; Cutright and Ferquist, 1998, 2000). 그러나 이혼 또한 가정의 해체라는 점에서 자살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합의 약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Stack, 1980). 더불어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혼인에 의한 혜택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배우자의 유무 보다는 성별이 더욱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지적되기도 한다(Gove, 1972; Danigelis and Pope, 1979). 때문에 성별에 따른 자살율의 차이와 그 원인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성별에 따른 자살율의 차이는 실업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Stack, 1985), 성별 정체성의 차이(Girard, 1993)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자살율의 성별차이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한 양상은 자살률의 남녀비가 수렴하다가 점차 벌어지는 것이다(Stack, 2000).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족사회의 통합을 약화시켜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된다(Stack, 1980, 1985; Cutright and Ferquist, 1998, 2000).

자살에 대한 뒤르켐의 논의는 세부적인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과 자살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심영희, 1986). 보다 정밀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사용한 최근의 연구결과들 또한 뒤르켐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 개념은 수치로서 측정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의 자살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올림픽 기간, 대규모 스포츠 행사기간 등의 자살양상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Shin, 1984; Trovato, 1998; Curtis, Loy, and Karnilowicz, 1986; Lester, 1988). 스포츠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연례행사라는 점에서 하나의 의식(ceremony)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과 연계될 수 있다. 연휴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뒤르켐의 가족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는 가족적 가치가 강조되는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 그가 말하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집합감정을 수

치료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연휴기간에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어 집합감정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집합감정의 강화는 사회적 통합의 강화로 이어지며, 곧 자살을 방지하는 ‘자살면역체계(suicidal immune system)’로 기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경,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의 기간에 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확연하게 증가하며, 변화된 사회적 통합의 정도는 자살양상에도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2)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적용

자살을 하나의 일탈행위로 규정한다면 자살을 설명함에 있어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이론은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일탈행위는 기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심 개념은 상황적 동기, 동료와 지내는 시간, 감시자의 부재, 구조화-비구조화된 활동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Osgood et al., 1996). 구조화된 활동은 예측 가능한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원들은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이 일정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이론에서 지적된 위의 개념들을 자살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논의에 적용하고자 한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감시자가 부재하고 비구조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은 평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감시자가 존재하며 예측 가능한 구조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살을 실행하기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일탈행위와 자살을 일상생활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자살을 방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자살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면, 동료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동료와 지내는 시간은 감시자의 감시 속에 지내는 것과 동일하며, 자살을 실행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된다.

일상생활 이론은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을 설명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휴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합적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평소보다 빈번하게 조성된다. 추석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준비하거나, 밤늦게까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자살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족사회의 통합과 같은 사회적 원인이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살을 실행할 환경만을 고려해 본다고 해도 연휴기간은 자살을 실행하기에 그리 좋은 시기는 되지 못한다.

3) 연휴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

연휴가 가지는 사회적 통합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른 사회학 이론들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통합의 개념을 사용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립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휴가 가지는 사회학적 의미를 이론화하기 위한 노력은 Etzioni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휴(holiday)의 기본적인 역할이 의식(ritual)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연휴와 의식의 개념을 모두 연휴로 정의한다. 뒤르켐에 의하면, 세속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도구적 활동 등은 믿음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개인주의를 증대시킨다. 때문

에 사회는 하나의 공유된 믿음과 실행에 몰두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산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의식은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공유된 대상을 숭배하게 되고, 구성원들 간의 감정적 결속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험들을 공유하게 된다. 의식의 특성들, 그리고 의식에서 숭배되는 대상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하다.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아닌 사회이며, 의미가 부여됨으로서 점차 통합적 성격을 가진 의식의 초석이 되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말의 종교활동 참가는 주중에 약화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연휴는 참여와 결속을 강화시키는 초-주말(supra-weekends)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Etzioni, 2000:45).

포괄적인 지표(global indicator)로서의 연휴는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다(Etzioni, 2000:46).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연휴를 한 사회의 신념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한 사회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정보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반드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비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뒤르켐의 사회적 통합 논의에서 출발한 연휴의 특성은, 연휴가 공유된 신념을 강화 시킴으로서만 사회적 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Etzioni는 각 연휴는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연휴가 같은 방식으로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휴를 재통합-연휴(recommitment holidays)와 긴장-관리 연휴(tension-management holidays)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재통합 연휴는 뒤르켐의 논의에 기반한 연휴의 성격을 가진다. 연휴가 수행하는 모든 의식들이 공유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된다. 전통적 성격을 지니는 연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긴장-관리 연휴는 과도한 신념에의 집착을 완화시킴으로서 연휴의 통합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신정 하루 이전을 들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과도한 음주와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며, 반사회적, 반통합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행동들은 공유된 신념으로의 지나친 강요가 가질 수 있는 압박감을 해소함으로써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연휴의 통합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연휴가 수행하는 통합기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연휴의 공공적 성격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연휴가 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거행되어 왔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연휴가 개인별, 가족별, 소규모 집단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적 연휴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긴밀한 유대의 약화를 가져오며, 동시에 개인의 사회로의 참여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것은 사회가 아닌 소규모 특정 집단으로의 통합, 그리고 개인적 성취와 이해관계에의 강조를 반영한다(Etzioni, 2000:52).

한편 뒤르켐은 특정 사회를 매우 잘 통합되어 있거나 통합되지 못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사회 영역간의 발전정도 차이는 영역간의 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연휴는 사회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사회변화에 뒤처지며, 보다 많이 뒤처질수록 연휴는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Etzioni, 2000:56).

Etzioni의 연휴에 대한 논의는 연휴와 사회적 통합 간의 연결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연휴

를 단순히 통합이 강화되는 시기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별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 통합적 기능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연휴를 사회적 통합이 변화하는 기간으로 간주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이 논문에서 설정한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연휴기간 자살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연휴기간 자살의 증감양상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가 이전까지는 과도한 자연신고나 누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질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따라서 자료의 질이 세부적인 통계분석을 하기에 충분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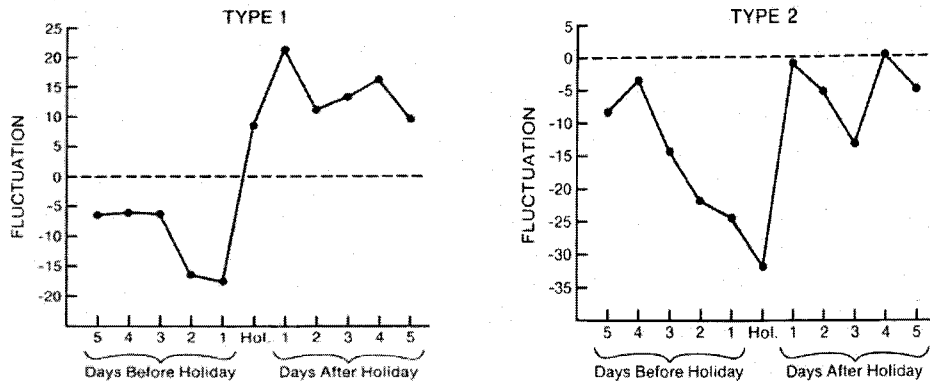
국외에서 연휴기간 자살양상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연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심리학의 입장에 대한 사회학적 반박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서구 심리학자들은 연휴를 근심, 무력감, 증대되는 성급함, 어린 시절 겪었던 연휴에 대한 그리움 혹은 좋지 않은 기억, 우울해짐,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한 마술적 해결에 대한 바램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Phillips and Liu, 1980:47).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연휴에 자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뒤르껐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연휴는 자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국외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뒤르껐의 논의를 확장한 'Death Dip' 가설이다. 뒤르껐에 따르면 사회는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특정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은 그 사회의 의식들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그는 개인의 사회로의 통합, 그리고 그 사회적 의식들에의 참여에 대한 의무를 연관시키고 있다. 통합의 강도와 의무의 강도는 두 극단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사회와 통합되지도 않고 의식에 포함되지도 않는 개인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과 상관없이 자살을 행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 상황의 개인을 가정할 수 있다. 사회에 상당 수준 통합되어 있는 개인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중요한 의식 이전에 자살의 수는 급감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식 이전의 자살자 수의 급감 현상을 'Death Dip' 이라고 명명하였다(Phillips and Feldman, 1973).

Death Dip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은 유명인들의 생일과 자살시기, 1904-1968년 사이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살양상, 1921-1969년 사이 속죄하는 유대인의 날(the Jewish day of atonement)과 자살양상 등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요한 의식 이전의 자살자수 감소를 확인하였고 이것을 자신들의 가설을 지지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주요 연휴기간에서의 자살양상에 대한 이후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72-1976년 미국의 동태 통계(vital statistics)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절, 신정, 워싱턴 탄생일,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주요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hillips and Liu, 1980).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휴를

<그림 1> 미국 연휴기간 자살양상의 두 가지 형태



Source: Phillips and Wills, 1987.

포함한 7일간의 자살양상은, 월요일에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이후로 점차 감소하다가 일요일에 약간 상승하는 요일 양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휴기간 이전 3일과 연휴 당일에서는 토, 일요일의 양상이, 이후 3일간에서는 자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월요일의 양상이 나타난다(Gabennesch, 1988). 1972-1978년 미국의 자료를 통해 주요 연휴와 스포츠 행사 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나,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등의 연휴에서 이전과 거의 동일한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행사의 Death Dip 효과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Curtis, Loy and Karnilowicz, 1986).

주요 연휴기간의 자살양상에 대한 비슷한 연구가 1973-1979년 미국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Phillips and Wills, 1987). 이 연구의 결과 또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휴기간 자살양상을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ype 1은 연휴이전에 자살이 평소보다 감소하며 연휴당일 이후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신정, 독립기념일, 노동절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전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Type 1의 양상에 포함된다. Type 2는 연휴이전부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평소보다 자살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전몰장병 기념일(memorial day),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Type 1의 양상은 연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연휴당일의 자살자수가 감소하는가 혹은 증가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연구는 2003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만을 사용하여 일별 자살변동을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박상화·임달오, 2006). 이 연구는 연휴기간 자살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2003년도 구정과 추석에 자살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 구정, 추석, 그리고 명절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휴일로 자리 잡은 성탄절을 연휴로 설정하고 있다. 그

러나 설정된 연휴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휴가 가지는 성격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명절에 존재하는 세시풍속의 기능으로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오락적 기능, 예술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산업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으로 만남의 기능, 소속확인의 기능, 전통문화의 보존적 기능이 첨가된다. 특히 만남의 기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설날이나 추석에 맞아 가족과 친척이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는 등의 세시풍속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가정교육의 장이자 전승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만남을 통해 새삼 소속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김명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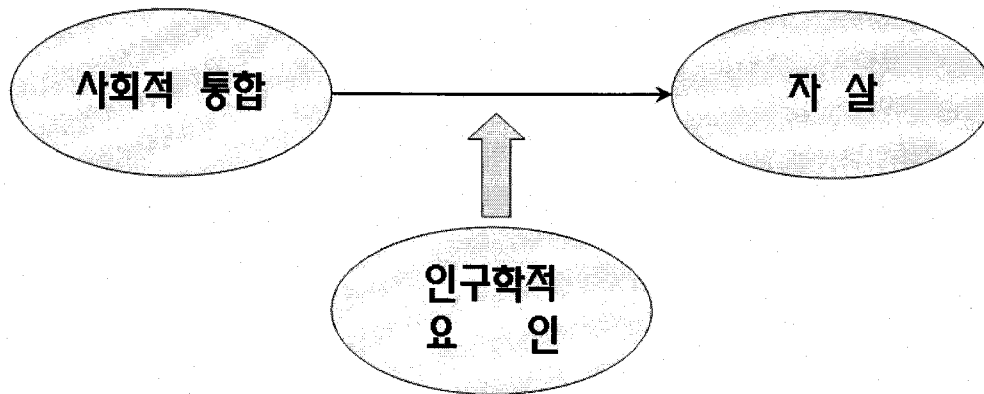
연휴별로 살펴보면, 우선 신정과 구정은 시기상 대개 한 달 남짓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지나온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집안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가족적 통합이 강화된다. 더불어 이 기간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때문에 사회전반에 걸쳐 통합의 정도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추석 또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농경사회의 성격과 의식들이 신정, 구정에 비해 보다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농작물의 풍요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던 전통놀이나 행사들은 그 의미와 참여도가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상의 덕을 기리는 뜻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가족이 모여 송편과 같은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 시기는 ‘민족 대이동’ 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어떤 연휴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혹은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석은 신정, 구정과 그 성격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가족 간 유대감의 증가에 의한 사회통합의 상승정도는 다른 연휴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미나 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정, 구정, 추석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절이 가진 만남의 기능이 강화되며 소속확인, 전통문화의 보존과 같은 기능이 강조된다. 이 기간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사고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밝은 분위기가 사회전체에 만연하게 되어 사회적 통합정도가 높아진다. 더불어 가족성원들은 전통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의식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통합은 증대된다. 따라서 신정, 구정, 추석은 Etzioni의 재통합 연휴(recommitment holidays)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와 같은 전통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또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가족에 중점을 두고 연휴에 의미를 부여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시자가 상존하는 상황이 되며, 상황적 동기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자살의도를 가졌던 사람은 그 의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지연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자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감소양상에는 혼인상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이 개인적인 행위이기 는 하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

<그림 2> 연휴기간 자살 양상에 대한 연구모형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개인은 가족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연휴시기에 가족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연휴 기간 자살자수의 감소는 무배우자 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명절이 가진 전통과 가족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대가 지날수록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 확인한 감소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독거노인 중 일부가 연휴기간 동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지만, 그 수는 미미하여 전체적인 양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정, 구정, 추석 등의 명절과는 달리 성탄절은 전통적인 기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의 성탄절은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아무런 기반 없이 특정 종교의 의도에 의해 서구적 가치와 문화가 그대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성을 가지기 힘들다. 예수 탄생일 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사랑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독교나 천주교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가치가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성탄절이 가족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젊은 남녀들의 만남에 좀 더 중심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리의 분위기가 활기찬 것은 사실이지만,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쉬는 반면 성탄절에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성행한다. 따라서 성탄절은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성이 강한 연휴로 구분할 수 있겠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성탄절은 Etzioni의 긴장-관리 연휴(tension-management holidays)의 특징들이 작동될 것으로 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타고 사회의 분위기가 상승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통합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의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을 벗어난 젊은 사람들 간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비구조화된 활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의 조성은 감시자의 존재로 인해 자살에는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성탄절 이후의 기간은 신정 이전의 기간과 이어진다. 신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통합 정도가 성탄절에 비해서 포괄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말에 통합이 증대되는 방식은 긴장-관리 연휴가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한 전통의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한 해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사적인 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약간의

일탈행위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러한 긴장완화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눌러있던 긴장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줌으로써 역으로 사회적 통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추석이후부터 신정 당일까지의 기간에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연휴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살양상 또한 혼인상태,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정, 구정, 추석은 <그림 1>에서 연휴당일까지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Type 1 양상을, 성탄절은 Type 2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 하여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연휴 이전과 연휴 당일에는 자살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가설 2: 연휴 이후에는 자살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단 성탄절 이후 3일에서는 자살자수가 감소할 것이다.
- 가설 3: 신정, 구정, 추석 등의 연휴기간 중 유배우자의 자살자수 감소폭은 무배우자에 비해 클 것이다.
- 가설 4: 신정, 구정, 추석 등의 연휴기간에서 높은 연령대의 자살자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 가설 5: 성탄절에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자수가 감소할 것이다.

IV.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연휴기간 자살자수의 증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살자수와 자살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0-200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장점은 일별 자살자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별 자살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동태통계 자료의 질이 상당 수준에 있는 2000년 이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하기에 충분히 정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연휴 이전 3일, 연휴당일, 연휴 이후 3일 동안 일별 자살자수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총 6년간의 자료이므로, 6번의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자료를 통해 자살자수 변화의 양상이 파악된다면 충분히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혼인상태는 15세 이상의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로 구분한다. 무배우자에는 이혼, 사별, 미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령은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등의 세 범주로 구분한다. 각각 15-29세는 학생, 30-59세는 경제활동인구, 60세 이상은 고령자 등을 주로 포함하므로 연령대 별 성격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은 구분하지 않았다. 성별 자살률의 차이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 차이가 나는 원인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적 가치가 강조되는 연휴시기에 사회적 통합의 영향은 남녀에 상관없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별 자살률의 차이는 경제활동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 경제활동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때문에 성별을 나누어 연휴기간의 자살양상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의 전반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변수별 자살자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자살자수는 2000년에서 2005년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구별하였을 경우 모든 연도에서 남자 자살자수가 여자 자살자수의 약 2배정도이며, 연령별로는 30-59세의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0세 이상 자살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와 무배우자의 자살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자수 남녀비는 연도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분석결과

1. 연휴별 평균 자살자수 비교

1) 혼인상태별 자살양상

특정 기간에 자살자수가 감소 혹은 증가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6년 동안의 계절별 1일 평균 자살자수를 구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혼인상태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비교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자살자수 평균을 구해야 하므로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이후 3일은 제외되고 계산되었다. 그리고 혼인상태에 따른 자살자수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연휴 이후 3일의 6년간 총 자살자수와 기간별 1일 평균 자살자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연휴기간 전후의 1일 자살자수 평균을 계절별 1일 자살자수 평균과 비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살자수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별 자살 변동을 2003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에 자살 빈도가 가장 높고,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난다(박상화·임달오, 2006).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연구결과와는 약간 다르다. 미

<표 1> 성·연령·혼인상태별 자살자수, 2000-2005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6,460	6,933	8,631	10,932	11,523	12,047
성별	남	4,491	4,871	5,954	7,541	7,903	8,053
	여	1,969	2,062	2,677	3,391	3,620	3,994
연령별	15-29세	1,175	1,122	1,224	1,491	1,293	1,602
	30-59세	3,629	3,787	4,674	5,796	6,070	6,045
	60세 이상	1,626	1,990	2,701	3,612	4,118	4,359
혼인상태별	유배우자	3,308	3,455	4,273	5,461	5,920	5,941
	무배우자	3,134	3,447	4,328	5,407	5,477	5,947

Note: 연령별, 혼인상태별 자살자수는 결측값 존재.

<표 2> 혼인상태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

(단위 명)

구분	유배우			무배우		
	합계	평균	표준편차	합계	평균	표준편차
봄	8,135	14.74	5.67	7,926	14.36	5.53
여름	7,826	14.18	5.24	7,627	13.82	5.27
가을	6,228	12.66	5.01	6,058	12.31	4.49
겨울	4,236	10.49	4.28	4,222	10.45	4.29

Note: 계절평균 계산에는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연휴 이후 3일 동안의 자살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표 3> 혼인상태별 자살자수 평균

(단위 명)

구분		유배우		무배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정-3	3일 이전	8.83	10.11	4.12	10.83	
신정-2		10.83		6.31		8.67
신정-1		10.67		5.09		10.33
신정		8.83	2.56	8.00	1.79	
신정+1	3일 이후	9.33	9.56	3.08	7.17	
신정+2		8.50		2.88		8.50
신정+3		10.83		3.13		12.50
구정-3	3일 이전	10.33	8.89	3.67	8.83	
구정-2		7.83		2.93		8.50
구정-1		8.50		3.78		7.33
구정		7.72	4.01	8.22	2.78	
구정+1	3일 이후	11.33	10.78	4.03	10.17	
구정+2		10.00		2.97		10.50
구정+3		11.00		4.43		10.33
추석-3	3일 이전	11.33	11.00	2.50	11.17	
추석-2		11.33		5.13		10.33
추석-1		10.33		5.54		10.17
추석		11.28	4.59	13.22	4.15	
추석+1	3일 이후	15.00	14.17	5.97	13.33	
추석+2		14.67		4.50		13.83
추석+3		12.83		5.19		15.50
성탄절-3	3일 이전	9.83	9.94	4.12	7.83	
성탄절-2		11.17		3.06		8.33
성탄절-1		8.83		1.33		7.50
성탄절		9.83	2.86	7.33	3.88	
성탄절+1	3일 이후	7.67	7.72	1.63	8.83	
성탄절+2		8.50		3.27		8.67
성탄절+3		7.00		2.68		9.00

Note: 계절평균 보다 낮은 수치일 경우 강조하였음.

국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자살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Gabennesch, 1988).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도 사망원인통계결과에서도 자살빈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낮아지며(통계청, 2007), 이 논문의 분석결과 또한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때문에 만약 계절 구분을 하지 않고 연휴기간 이외의 기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또한 가을이나 겨울에 포함되는 연휴의 자살자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항상 낮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살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요인은 요일 효과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연구결과 자살자수는 대체로 월요일에 가장 많고, 토요일에 가장 적은 양상을 보인다(Gabennesch, 1988; 박상화·임달오, 2006;). 그러나 6번의 연휴동안 설정된 기간이 대체로 거의 모든 요일에 한 번씩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비교할 경우 비교 기준은 계절평균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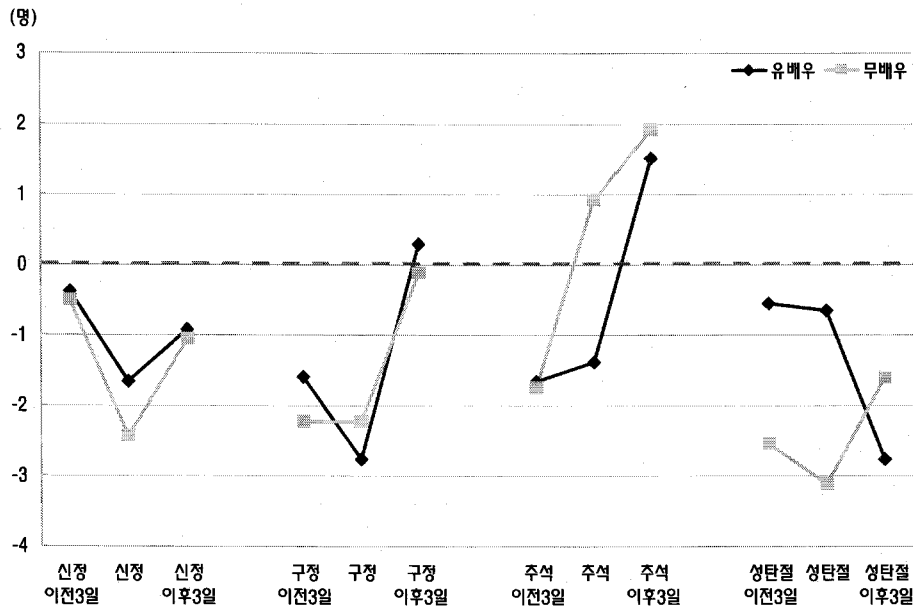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는 계절을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12월-2월)로 설정하였다. 신정, 구정, 성탄절은 12월-2월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하며, 추석은 9월-10월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정, 구정, 성탄절은 겨울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가, 추석은 가을평균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휴 이전 3일, 이후 3일 간의 자살자수 평균을 1일 간격과 3일 간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유배우의 자살양상부터 살펴보면,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당일에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휴의 이전 기간에 3일 간격 자살자수 평균은 평소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휴 이후의 기간에서는 2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신정과 성탄절에는 연휴 이후 3일 동안에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감소하며, 구정과 성탄절에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탄절 이후의 3일은 신정 이전 기간과 연결되며 긴장-완화 연휴가 통합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통합이 증가하리라 간주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소세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신정 이후 3일의 자살자수 감소는 예상에서 벗어난다. 연휴 이전과 이후를 3일 간격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살자수 평균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1일 간격 평균을 살펴보아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신정의 경우 신정 3일 이전의 자살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3일 평균이 낮아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빌려 종합하여 보면, 유배우의 경우 신정과 성탄절에서는 Type 1의 양상이, 구정과 추석에서는 Type 2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무배우의 자살양상을 살펴보면,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들에서 연휴 당일의 자살자수 감소가 확인되었다. 우선 3일 간격 평균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3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정, 구정, 성탄절은 전 기간에 걸쳐 자살자수 감소양상을 나타내며, 추석은 3일 이전의 감소, 3일 이후의 증가 양상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즉, 추석은 연휴당일부터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Type 1의 양상을, 나머지 연휴들은 Type 2의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1일 간격 평균과 3일 간격 평균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정의 경우 신정 2일 이전의 자살자수가 낮아 전체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 성탄절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을 자살자수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유배우와 무배우 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두 집단에서 신정과 성탄절의 자살양상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구정

<그림 3> 혼인상태별 연휴별 자살양상, 3일 간격 평균



과 추석에서 구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유배우의 경우 구정 이후 3일에서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높지만, 무배우의 경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배우의 경우 추석에 자살자수가 감소하지만, 무배우의 경우 추석 당일부터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약간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신정연휴 전 기간에 걸쳐 자살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신정 이전 3일의 감소가 특정 하루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전 3일 동안의 자살자수가 감소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전반적인 양상을 시각적으로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보기 위해 <그림 3>을 제시하였다. 이 그림들에는 <표 3>의 3일 간격 평균 자살자수가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의 가설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휴 이전 3일 동안의 자살자수 감소, 연휴 당일 감소, 연휴 이후 3일 동안의 증가를 가정하였다(감소-감소-증가). 비교 기준은 연휴가 포함되는 계절의 자살자수 평균이 사용되었다. <그림 3>은 연휴가 포함되는 계절의 자살자수 평균과 각 일의 자살자수 평균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때문에 0을 기준으로, '+' 이면 평소보다 특정일에 자살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 이면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가정대로라면 연휴 당일까지는 '-' 의 값을, 연휴 이후에는 '+' 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림 3>을 살펴보면,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연휴기간에서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인 경우는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배우자의 경우 추석 당일부터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감소-감소-증가 양상은 구정과 추석 기간의 유배우자에게서 나타난다. 신정 기간에는 차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성탄절 이후 3일까지의 감소세가 신정 이전 3일에 증가하고 있다. 물론 3일 간격의 자살자수 평균은 평소보다 낮지만, 3일 중 2일이 평소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모든 연도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

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에게는 부정적인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살 양상은 평소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성탄절 이후까지 감소했던 자살자수가 신정 이전에 잠시 평소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신정을 맞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거의 모든 연구대상 기간에서 자살자수의 감소가 나타난다. 둘째, 예상했던 감소-감소-증가 양상은 유배우자에게서 구정과 추석에만 나타난다. 셋째, 무배우자의 경우 추석 당일부터 평소보다 높은 자살자수가 확인된다. 넷째, 성탄절 이후 3일과 비교하면 신정 이전 3일에서 자살자수의 일시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연휴별 자살자수 평균을 계절평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배우자의 경우 연휴당일에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Type 1의 양상이 구정과 추석에서 관찰되며, 무배우자의 경우 추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Type 2의 양상이 확인된다.

2) 연령대별 자살양상

연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기 위해 혼인상태별 자살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휴기간의 자살자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성탄절에는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교기준이 되는 계절평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령별 자살자수 평균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15-29세 집단을 살펴보면, 구정과 성탄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당일의 자살자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정과 추석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이전과 이후의 자살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3일 간격 평균을 보면, 구정 이후 3일, 추석 이후 3일 이외의 기간에서는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1일 간격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정 이전 3일간의 자살자수 감소는 특정일의 감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감소추세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정 이후 3일의 경우 구정 이후 첫날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3일간의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구정 이후 3일에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이 연령 집단에서는 성탄절 기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다른 연휴의 자살양상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으로 중간 연령대인 30-59세 집단의 자살자수 평균을 살펴보면, 일단 모든 연휴의 당일은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휴 이전과 이후의 자살양상 확인을 위해 3일 간격 평균을 살펴보면, 신정 이전 3일, 구정 이후 3일, 추석 이후 3일에는 자살자가 증가하며, 나머지 기간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세부적인 확인을 위해 1일 간격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크게 다른 해석이 나오지는 않는다. 젊은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성탄절 기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구정과 추석에서는 이 논문의 가정하고 있는 자살자수의 감소-감소-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정과 추석은 Type 1의 형태를, 성탄절은 Type 2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신정의 경우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연휴 이전에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높아졌다가 연휴 당일 이후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감소양상이 젊은 연령대에 비해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는 신정 전 기간에 걸친 감소양상, 구정과 추석의 감소-감소-증가양상, 성탄절 3일 이후

<표 4> 연령별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

(단위: 명)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봄	2,321	4.20	2.42	8,427	15.27	5.55	5,354	9.70	4.79
여름	2,184	3.96	2.19	8,163	14.79	5.24	5,179	9.38	4.66
가을	1,633	3.32	1.87	6,497	13.21	4.87	4,200	8.54	4.34
겨울	1,238	3.06	1.90	4,770	11.81	4.39	2,488	6.16	3.53

Note: 계절평균 계산에는 연휴 이전 3일, 연휴 당일, 연휴 이후 3일 동안의 자살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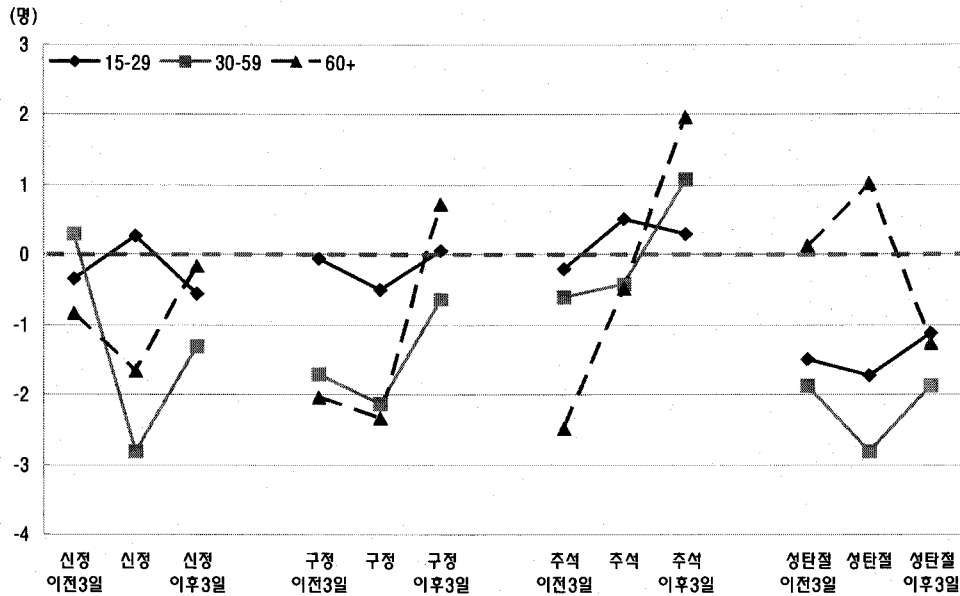
<표 5> 연령별 자살자수 평균

(단위: 명)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신정-3	3일 이전	2.50	1.38	12.00	3.46	5.00	3.10
신정-2		3.00	2.72	11.33	12.11	5.67	5.33
신정-1		2.67	1.75	13.00	6.45	5.33	2.16
신정		3.33	1.37	9.00	2.37	4.50	1.87
신정+1	3일 이후	2.17	1.72	9.67	3.56	5.00	3.63
신정+2		1.83	2.50	9.33	10.50	5.67	6.00
신정+3		3.50	1.64	12.50	3.94	7.33	2.34
구정-3	3일 이전	3.83	1.83	10.50	3.08	4.83	3.92
구정-2		2.00	3.00	10.67	10.11	4.00	4.11
구정-1		3.17	3.49	9.17	1.83	3.50	2.35
구정		2.56	1.85	9.67	4.26	3.83	2.66
구정+1	3일 이후	3.67	1.21	11.83	4.02	6.00	3.58
구정+2		2.83	3.11	9.83	11.17	7.83	6.89
구정+3		2.83	2.32	11.83	3.97	6.83	2.93
추석-3	3일 이전	3.17	1.33	13.17	3.49	6.33	3.33
추석-2		3.50	3.11	11.33	12.61	6.83	6.06
추석-1		2.67	1.63	13.33	6.06	5.00	3.74
추석		3.83	2.07	12.78	4.28	8.06	4.09
추석+1	3일 이후	3.83	1.94	13.83	5.95	10.67	6.09
추석+2		3.67	3.61	13.83	14.28	11.00	10.50
추석+3		3.33	2.88	15.17	7.55	9.83	3.66
성탄절-3	3일 이전	2.00	1.26	10.33	4.41	5.17	3.37
성탄절-2		1.50	1.56	9.50	9.94	8.50	6.28
성탄절-1		1.17	0.98	10.00	3.16	5.17	1.47
성탄절		1.33	1.03	9.00	3.35	7.17	3.97
성탄절+1	3일 이후	2.00	1.55	9.17	3.19	5.50	2.07
성탄절+2		1.33	1.94	11.33	9.94	4.67	4.89
성탄절+3		2.50	1.38	9.33	1.63	4.50	2.51

Note: 계절평균 보다 낮은 수치일 경우 강조하였음.

<그림 4> 연령대별 연휴별 자살양상, 3일 간격 평균



의 감소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령집단과 다른 점은 성탄절 당일에 오히려 자살자수가 평소보다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성탄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연휴별 연령별 자살자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주목할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15-29세 집단에서 성탄절의 자살자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둘째, 30-59세 집단에서 신정 이전 3일 동안 자살자수의 증가추세가 나타난다. 셋째, 60세 이상 집단에서 성탄절 이전 3일과 당일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3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구정, 추석에 감소-감소-증가 양상이 확연히 나타난다. 다섯째, 모든 연령에서 성탄절 이후 3일에는 자살자수의 감소세를 보인다.

혼인상태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살양상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 <그림 4>를 제시하였다. 그림에는 <표 6>의 수치가 사용되었으며, 해석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림 4>를 중심으로 양상을 파악해 보면, 연령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15-29세 집단의 경우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휴에서 평소와 비슷한 자살자수를 보인다. 연휴 당일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반면 성탄절에는 확연하게 자살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간 연령대의 경우 거의 모든 연휴기간에서 감소세를 보인다. 추석에는 감소-감소-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정에는 나머지 연령집단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성탄절 이후 3일까지 매우 낮았던 자살자수가 신정 이전 3일에 평소보다 약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집단에서도 성탄절의 감소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60세 미만의 집단과는 차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신정 전 기간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며, 구정과 추석에는 감소-감소-증가의 양상이 확연히 나타난다. 특히 연휴 당일 이후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탄절에는 다른 연령 집단과 거의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성탄절 이전 3일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많으며,

이후 3일 동안 급격히 감소한다.

세대차이가 확연한 15-29세 젊은 연령대와 60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자살양상을 비교해 보면, 자살양상 또한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연령대 집단은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연휴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반면, 고령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명확한 감소 혹은 감소-감소-증가 양상을 나타낸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성탄절에는 오히려 자살자수가 평소수준 이상이며,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야 감소세가 나타난다.

2. 회귀분석 결과

혼인상태,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특정 기간별 자살자수의 평균은 계절평균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할 경우 분명 그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느 정도 명확해진 자살양상의 요일별 편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가 2000-2005년 사이 총 6년간의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연도별 편차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단위는 2000-2005년도 사이 총 2,192일 간의 일별 자살자수이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속변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더미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기간 별 자살자수 평균의 차이에 얼마나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첫째, 분산분석과 가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동일하며, 둘째, 회귀분석에서는 분산분석에서 주어지지 않는 정보가 제공되어 추가적인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분산분석은 단지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줄 뿐이며, 자료의 추세분석을 목적으로 할 경우 회귀분석이 보다 바람직하다(김두섭, 강남준, 2000).

먼저 요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요일을 월화, 수목금, 토일 등의 세 범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요일별 자살양상은 대체로 월요일에 자살자수가 가장 많고 주말에 가장 적은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요일별 양상이 하루가 지날 때 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세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요일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모든 요일을 각각 더미변수로 만들어 통제할 수도 있으나, 더미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계절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계절구분은 계절별 자살자수 평균에서 사용한 기준과 같다. 연도의 경우 범주구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각 연도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연휴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3일 간격으로 구분하고 모든 기간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한 번의 회귀분석에 모든 기간이 구분되어 투입되므로 연휴별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휴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1일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휴별로 총 4회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따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귀분석 대상이 아닌 연휴는 전체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신정을 분석할 경우, 구정, 추석, 성탄절 당일, 3일 이전, 3일 이후 기간은 삭제되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루 간격으로 구분하므로 모든 연휴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할 경우 더미변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휴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분석은 1일별 양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연휴 간 비교는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휴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휴 이전과 이후를 1일 간격으로 구분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찬가지로, 회귀분석 대상이 아닌 연휴는 전체에서 제외되었다. 이 분석은 평균 자살자수 분석에서 발생한 기준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가적으로 각 연휴의 이전 3일, 당일, 이후 3일을 한 기간으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는 별첨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1) 혼인상태별 연휴기간 자살양상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휴 전후 기간을 3일 간격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통제를 위해 사용한 더미변수부터 살펴보면, 요일의 경우 월요일에 가장 많은 자살이 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적은 자살이 발생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절별 편차 또한 봄, 여

<표 6> 혼인상태별 연휴기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3일 간격

구분	유배우		무배우		
	B	S.E	B	S.E	
신정-3	-0.32	0.96	-0.46	0.96	
신정	-1.63	1.64	-2.44	1.64	
신정+3	-0.93	0.96	-1.06	0.96	
구정-3	-1.53	0.96	-2.17	**	0.96
구정	-2.78	***	0.96	**	0.96
구정+3	0.40	0.96	-0.03		0.96
추석-3	-1.48	0.96	-1.61	*	0.96
추석	-1.50	0.96	0.81		0.96
추석+3	1.55	0.96	1.94	**	0.96
성탄절-3	-0.49	0.96	-2.52	***	0.96
성탄절	-0.63	1.64	-3.11	*	1.64
성탄절+3	-2.81	***	0.96	*	0.96
수목요일	-0.65	***	0.21	***	0.21
토요일	-1.58	***	0.23	***	0.23
여름	-0.56	**	0.24	**	0.24
가을	-2.08	***	0.25	***	0.25
겨울	-4.26	***	0.26	***	0.26
2001	0.41		0.30	***	0.30
2002	2.66	***	0.30	***	0.30
2003	5.91	***	0.30	***	0.30
2004	7.13	***	0.29	***	0.29
2005	7.23	***	0.30	***	0.30
상수	11.58	***	0.29	***	0.29
F 비	79.95***		75.88***		
R ²	0.45		0.44		

Note: 1) *: $p < .10$, **: $p < .05$, ***: $p < .01$.

2) 기준은 월화 / 봄 / 2000년 임.

<표 7> 혼인상태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연휴통합

구분	유배우		무배우	
	B	S.E	B	S.E
-3	-0.43	1.64	-2.34	1.62
-2	-0.53	0.83	-1.73	** 0.82
-1	-1.37 *	0.83	-1.97	** 0.82
연휴	-1.85 ***	0.59	-1.17	** 0.58
+1	-0.20	0.83	-1.00	0.82
+2	-0.58	0.83	-0.47	0.82
+3	-0.37	0.83	1.17	0.82
수목금	-0.66 ***	0.21	-0.57	*** 0.20
토일	-1.58 ***	0.23	-1.35	*** 0.22
여름	-0.56 **	0.24	-0.54	** 0.24
가을	-2.03 ***	0.24	-1.93	*** 0.24
겨울	-4.35 ***	0.25	-4.08	*** 0.25
2001	0.41	0.30	0.87	*** 0.29
2002	2.65 ***	0.30	3.28	*** 0.29
2003	5.91 ***	0.30	6.24	*** 0.29
2004	7.13 ***	0.30	6.40	*** 0.29
2005	7.23 ***	0.30	7.72	*** 0.29
상수	11.58 ***	0.29	10.90	*** 0.28
F 비	102.13***		97.07***	
R ²	0.44		0.43	

Note: 1) *: $p < .10$, **: $p < .05$, ***: $p < .01$.
 2) 기준은 월화 / 봄 / 2000년 일.

름, 가을, 겨울 순으로 자살자수가 줄어드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도별로는 <표 1>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2005년으로 갈수록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배우의 경우 2001년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0년과 2001년의 총 자살자수 차이가 약 500명밖에 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계를 위한 요일, 계절, 연도 변수는 그 양상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모든 회귀분석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유배우자의 연휴별 자살양상을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구정 당일과 성탄절 이후 3일에서만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무배우자의 경우 구정 이전 3일부터 구정 당일까지, 추석 이전 3일, 성탄절 전 기간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추석 이후 3일에서는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의 경우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평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자수 평균을 통해 양상을 파악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림 3>에서는 혼인상태 간 자살양상의 차이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무배우자의 경우 추석 당일에 자살자수가 상승하는 예상하지 못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무배우자에게서 감소세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정과 성탄절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휴 각각의 전체적인 증감양상을 확인해 보기위해 추가적으로 각각의 연휴 이전 3일, 이후 3일과 연휴 당일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구정과

성탄절에 모두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서는 유배우의 경우 구정 당일과 성탄절 이후 3일에서만 유의미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분석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정과 성탄절 기간에 조금이나마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간으로 묶일 경우 유의미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균 자살자수를 통한 자살양상의 분석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휴를 하나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유배우의 경우 연휴 당일과 1일 이전, 무배우의 경우 연휴 당일과 1일, 2일 이전에서 자살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구가설에서 설정하였던 연휴 이후의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자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감소-감소-증가 양상이 추석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휴 이후의 자살자수 증가는 추석에 무배우자에게서만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이 Type 2의 양상을 가지는 다른 연휴와 통합되

<표 8> 연령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3일 간격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B	S.E	B	S.E	B	S.E
신정-3	-0.33	0.49	0.35	0.99	-0.79	0.78
신정	0.28	0.84	-2.80 *	1.69	-1.64	1.34
신정+3	-0.56	0.49	-1.30	0.99	-0.16	0.78
구정-3	-0.04	0.49	-1.65 *	0.99	-2.00 **	0.78
구정	-0.51	0.49	-2.14 **	0.99	-2.34 ***	0.78
구정+3	0.08	0.49	-0.55	0.99	0.80	0.78
추석-3	-0.15	0.49	-0.43	0.99	-2.37 ***	0.78
추석	0.48	0.49	-0.54	0.99	-0.56	0.78
추석+3	0.30	0.49	1.11	0.99	1.98 **	0.78
성탄절-3	-1.49 ***	0.49	-1.82 *	0.99	0.16	0.78
성탄절	-1.72 **	0.84	-2.80 *	1.69	1.02	1.34
성탄절+3	-1.14 **	0.49	-1.90 *	0.99	-1.31 *	0.78
수목금	-0.19 *	0.11	-0.66 ***	0.21	-0.36 **	0.17
토일	-0.48 ***	0.12	-1.42 ***	0.23	-1.02 ***	0.18
여름	-0.25 **	0.12	-0.48 *	0.25	-0.32	0.20
가을	-0.89 ***	0.13	-2.06 ***	0.26	-1.16 ***	0.20
겨울	-1.14 ***	0.13	-3.46 ***	0.27	-3.54 ***	0.21
2001	-0.14	0.15	0.45	0.30	1.00 ***	0.24
2002	0.14	0.15	2.88 ***	0.30	2.95 ***	0.24
2003	0.87 ***	0.15	5.95 ***	0.30	5.44 ***	0.24
2004	0.32 **	0.15	6.67 ***	0.30	6.81 ***	0.24
2005	1.18 ***	0.15	6.64 ***	0.30	7.49 ***	0.24
상수	4.03 ***	0.15	12.19 ***	0.30	6.20 ***	0.24
F 비	13.34***		62.17***		99.32***	
R ²	0.12		0.39		0.50	

Note: 1) *: $p < .10$, **: $p < .05$, ***: $p < .01$.

2) 기준은 월화 / 봄 / 2000년 임.

면서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령별 연휴기간 자살양상

다음으로 연령별 자살양상을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표 8>는 연휴 이전과 이후를 3일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 별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15-29세 집단에서는 성탄절 전 기간에 걸쳐 자살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성탄절 이외의 연휴 기간에서는 어떠한 증감도 발견되지 못했다. 중간 연령대인 30-59세 집단에서는 신정, 구정, 성탄절 당일에서 유의미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구정의 경우 구정 이전 3일에서도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탄절에는 전 기간에 걸쳐 평소보다 자살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집단인 6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구정 이전 3일, 구정 당일, 추석 이전 3일, 성탄절 이후 3일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추석 이후 3일에서는 다른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자살자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연휴의 전 기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젊은 연령대에서는 성탄절 기간에서만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중간 연령대에서는 구정과 성탄절 기간에 자살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표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정 이전 3일과 성탄절 이전 이후 3일 간은 전반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는 구정 기간에만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60세 미만의 집단과는 달리 추석 기간에 급격한 감소-감소-증가 양상을 보이며, 성탄절에는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연휴 기간을 통합한 결과, 감소와 증가가 상쇄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휴를 통합하여 연휴 이전과 이후를 1일 간격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연령별 자살양상의 차이를 가정한 연구가설 2번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젊은 연령대인 15-29세 집단에서는 전 연휴 기간에서 감소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30-59세 집단에서는 연휴 당일의 자살자수 감소가 확인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에서는 연휴 1일 이전부터 연휴 당일까지 자살자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자살양상의 연령별 차이를 가정한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정 연령대에서 확인된 연휴 3일 이후의 증가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연휴 간 차별되는 양상이 상쇄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연휴 당일까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자살양상 차이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결과 및 함의

한국 사회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동시에 경제 발전이 수반하는 사회 각 영역의 변동 또한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여파로 오히려 나머지 영역의

변동은 보다 가속화 되었다. 극심한 변화는 사회 각 부분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의 통합정도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약해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안정적인 시기를 찾기 어려웠던 터라, 불안정한 시기에도 사회적 통합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정도로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 변동은 왜곡된 서구의 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확대되는 개인주의, 무너지는 가족적 가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 정도와 자살간의 상관관계를 주장한 뒤르겐의 입장에서, 점차로 높아져만 가는 자살률은 한국 사회의 통합정도에 강한 의문을 가지도록 만든다.

그동안의 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왜 자살률이 높아져 가는데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늘어가는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어떻게든 감소시킬 방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자살 증가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 통합의 약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뒤르겐의 주장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심, 사랑, 대화 등이 활발해진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수 있고, 이러한 사회 안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은 분명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행위 중 하나이지만, 자살조차도 사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사회적 통합이 강한 시기에 자살은 분명 감소해야 한다. 따라서

<표 9> 연령별 자살양상에 대한 회귀분석, 연휴통합

구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B	S.E	B	S.E	B	S.E
-3	-0.97	0.84	-1.22	1.69	-0.83	1.34
-2	-0.55	0.42	-1.25	0.86	-0.34	0.68
-1	-0.67	0.42	-0.70	0.86	-1.93 ***	0.68
연휴	-0.18	0.30	-1.66 ***	0.61	-1.12 **	0.48
1	-0.20	0.42	-1.02	0.86	0.05	0.68
2	-0.69	0.42	-1.03	0.86	0.58	0.68
3	0.00	0.42	0.28	0.86	0.55	0.68
수목금	-0.19 *	0.11	-0.66 ***	0.21	-0.38 **	0.17
토일	-0.48 ***	0.12	-1.42 ***	0.23	-1.03 ***	0.18
여름	-0.25 **	0.12	-0.48 *	0.25	-0.32	0.20
가을	-0.84 ***	0.12	-1.96 ***	0.25	-1.15 ***	0.20
겨울	-1.20 ***	0.13	-3.59 ***	0.26	-3.63 ***	0.21
2001	-0.14	0.15	0.45	0.31	1.00 ***	0.24
2002	0.14	0.15	2.88 ***	0.31	2.95 ***	0.24
2003	0.87 ***	0.15	5.95 ***	0.31	5.44 ***	0.24
2004	0.32 **	0.15	6.67 ***	0.30	6.81 ***	0.24
2005	1.18 ***	0.15	6.64 ***	0.31	7.49 ***	0.24
상수	4.03 ***	0.15	12.19 ***	0.30	6.21 ***	0.24
F 비	16.42***		79.86***		126.17***	
R ²	0.11		0.38		0.50	

Note: 1) *: $p < .10$, **: $p < .05$, ***: $p < .01$.

2) 기준은 월화 / 봄 / 2000년 임.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충분히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실제로 자살이 감소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증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느 집단에서, 왜 감소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행한다면, 증가하는 자살율의 원인을 역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연휴라고 여겨지는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기간의 자살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휴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행사를 통해 공통된 가치로 사회를 끌어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는 시기로 생각된다. 연휴가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통합의 기능에 주목하여 신정, 구정, 추석, 성탄절 기간에 자살자수가 평소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신정, 구정, 추석 등 전통적인 명절에 강조되는 가족적 가치에 기반하여 유배우자의 감소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좀 더 명확한 감소양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대로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고 젊은 연령대에게 의미가 큰 성탄절 기간에는 젊은 연령대의 자살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2005년 사망원인통계를 가공하여 일별 자살자수를 혼인상태별, 연령대별로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연휴이전과 당일, 이후를 1일 간격 혹은 3일 간격으로 구분하여, 기간별 평균 자살자수를 계절평균과 비교하였다. 이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살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핵심적인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연휴에 자살자수가 감소한다. 자살양상은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자살양상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연휴기간을 통합한 결과, 젊은 사람들 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서 연휴기간에 자살자수의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젊은 연령대에서 성탄절 기간에 자살자수의 감소가 명확히 나타나며, 고령자 집단의 경우 성탄절에 오히려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연구가설에서 가정하였던 자살자수의 감소-감소-증가의 양상은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구정과 추석 이후 3일간 일부 집단에서 자살자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부가적으로 자살빈도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순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휴기간에 자살자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자살자수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연령대로 구분하여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휴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것은 보다 많은 기간에서 높은 연령대의 자살자수 감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휴는, 연휴가 가지는 가족적 가치의 강조, 사회 참여로의 강조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키며 이것은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기재로 작동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휴에 강조되는 요인들이 자살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통해 사회 안정을 위해 공식적인 연휴를 늘려야 한다던가 하는 류의 주장은 이 논문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연휴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 가족적 가치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연휴에는 한해 중 그 어떠한 시기보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선명해진다. 특히 신정, 구정, 추석 기간의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의식이나 가치의 강조를 통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시기에는 그동안 가족의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한 번쯤 자신의 가

족에 대해 돌아보게 만든다. 때문에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도 연휴기간에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자살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연휴에서 자살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논문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 자살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과 인생을 함께하는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연휴기간에 가족의 의미를 보다 깊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혼인을 했건 안했건 간에 모든 개인은 모든 가족의 핵심 구성원이므로 가족형성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살 방지기재로서의 가족 영향력의 영역이 그만큼 넓고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자살양상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세대가 지날수록, 연휴가 가지는 사회 통합적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tzioni의 지적처럼 사회 각 영역의 발전정도의 차이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연휴에 강조되는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인주의적 가치 속에서 살아왔으며, 때문에 연휴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젊은 세대에게 연휴는 전통 문화를 접하고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라기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는 시기 정도로만 생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기간이 긴 연휴일수록 공항에서 한국을 빠져나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카메라에 담긴다. 이처럼 연휴에 이루어지는 의식들이 점진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감에 따라, 여행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가 중심이 되고 가족과의 시간 혹은 의식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벤트 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성탄절 기간에만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보다 자신을 우선시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해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족의 의미가 점차 퇴색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의 형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과거의 가치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족이므로 사회의 근간은 가족에 있다. 따라서 가족사회의 균열은 비단 자살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 논문의 결과는 가족적 가치에 기반 하는 가족사회의 통합이 매우 개인적인 행위로 생각되는 자살을 방지하는 기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회복은 현재의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김명자. 2004.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모색.” 민속연구 13: 145-166.

- 김용분·이정섭. 2003. “자살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2(4): 394-401.
- Durkheim, Emile. 1897. 『자살론』. 김충선 역(1994). 청아출판사.
- 박경애. 1996. “성(Gender)과 자살.” 『가족과 문화』 창간호: 149-171.
- 박상화·임달오. 2006. “우리나라 일별 자살의 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 32(1): 35-40.
- 박종순·김순덕·지선미·이제숙. 2003.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25(2): 84-91.
- 심영희. 1986. “한국사회의 자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정신건강연구』 4: 49-71.
- 오진경·조영태·김창엽. 2005.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8: 191-210.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이귀행. 2004.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11-14.
- 이장희·박계열·이혜리·윤방부·신승철·이호영·김진학·민성혜·김임. 1990. “자살기도자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가정의』 11(3): 1-16.
- 제영묘. 2004. “자살과 정신 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3-10.
- 통계청. 2006. 『2005년 사망원인통계결과』.
- _____. 2007.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 Bollen, K. A. 1983. “Temporal Variations in Mortality: A Comparison of U. S. Suicides and Motor Vehicle Fatalities, 1972-1976.” *Demography* 20(1): 45-59.
- Brädvik, Louise and Mats Berglund. 2003. “A Suicide Peak after Weekends and Holidays i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Summer: 186-191.
- Breault, K. D. 1986. “Suicide in America: A test of Durkheim's Theory of Religious and Family Integration, 1993-1980.”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3): 628-656.
- Cohen, L. E. and M.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August): 588-608.
- Curtis, James, John Loy, and Wally Karnilowicz. 1986. “A Comparison of Suicide-dip Effects of Major Sports Events and Civil Holidays.” *Sociology of Sports* 3: 1-14.
- Curtright, Phillips and Robert M. Fernquist. 2000. “Effects of Societal Integration, Period, Region, and Culture of Suicide on Male Age-Specific Suicide Rates: 20 Developed Countries, 1955-1989.” *Social Science Research* 29: 148-172.
- Danigelis, Nick and Whitney Pope. 1979. “Durkheim's Theory of Suicide as Applied to the Family: An Empirical Test.” *Social Forces* 57(4): 1081-1106.
- Etzioni, Amitai. 2000. “Toward a Theory of Public Ritual.” *Sociological Theory* 18(1): 44-59.
- Fernquist, Robert M. 2007. “How do Durkheimian Variables Impact Variation in National Suicide Rates When Proxies for Depression and Alcoholism are controlled?”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1: 361-374.
- Fernquist, Robert M. and Phillips Curtright. 1998. “Societal Integration and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in 21 Developed Countries, 1955-1989.” *Social Science Research* 27: 109-127.
- Gabennesch, Howard, 1988. “When Promises Fail: A Theory of Temporal Fluctuations in Suicide.” *Social Forces* 67(1): 129-145.
- Girard, Chris. 1993. “Age, Gender, and Suicide: A Cross Natio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August): 553-574.

- Gove, Walter R. 1972. "Sex, Marital Status and Suicid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June): 204-213.
- Jessen, Gert and Børge F. Jensen. 1999. "Postponed Suicide Death? Suicides around Birthdays and Major Public Holiday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3): 272-283.
- Krull, Catherine and Frank Trovato. 1994. "The Quiet Revolution and the Sex Differential in Quebec's Suicide Rates: 1931-1986." *Social Forces* 72(4): 1121-1147.
- Osgood, D. W., J. K. Wilson, P. M. O'Malley, J. G. Bachman, and L. D. Johnston.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 Phillips, D. P. and John S. Wills. 1987. "A Drop in Suicides around Major National Holiday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1): 1-12.
- Phillips, D. P. and Judith Liu. 1980. "The Frequency of Suicides around Major Public Holidays: Some Surprising Finding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0: 41-50.
- Phillips, D. P. and K. A. Feldman. 1973. "A Dip in Deaths before Ceremonial Occasions: Some New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mort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6): 678-696.
- Phil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 340-354.
- Shin, Eui Hang. 1990. "The Olympic Games and Suicide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Seoul Olympiad on Social Integration in Korea." Pp. 235-248, in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Toward One World Beyond All Barriers. Vol. 1. Seoul Olympiad Anniversary Conference*. Seoul, Korea.
- Stack, Steven and Ira Wasserman. 1993. "Marital Status, Alcohol Consumption, and Suicide: An Analysis of National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November): 1018-1024.
- Stack, Steven. 1980. "The Effects of Marital Dissolution on Suici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83-92.
- _____. 1985. "The Effect of Domestic/Religious Individualism on Suicide, 1954-1978."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431-447.
- _____.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45-162.
- _____.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I: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45-162.
- Travis, Robert. 1990. "Halbwachs and Durkheim: A Test of Two Theories of Suicid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1(2): 225-243.
- Trovato, F. 1998. "The Stanley Cup of Hockey and Suicide in Quebec, 1951-1992." *Social Forces* 77(1): 105-127.